

중국 인터넷종교 연구*

유미경**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중국 인터넷종교 정책
 - 1) 시진핑 지도부 이전
 - 2) 시진핑 지도부 이후
3. 중국 인터넷종교 현황
 - 1) 정부 및 관변단체의 종교사이트
 - 2) 학술 및 종교단체의 종교 전문사이트
 - 3) 포털사이트, 블로그, 개인 SNS 공간에서의 종교활동
 - 4) 반정부적 인터넷종교 활동
4. 나오면서

【초록】

현재 중국은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의 민주적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력한 검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법치의 관철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과 종교는 갈등의 현장이자 해결을 기다리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강화되어온 인터넷종교 유관정책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필자가 두 해 정도 온라인에서 주시해 왔던 중국 인터넷종교의 활동양상을 고찰했다. 그 활동주체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당정이 내놓은 인터넷종교 정책에 순응하거나 경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인터넷, 종교, 중국, 종교정책, 종교사무조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 B5A07074408)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chinamky@daum.net)

1. 들어가면서

현대사회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담론을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개방·참여·공유·혁신의 속성을 가진 인터넷의 공간 안에서 민주적인 기능을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정체성 수호를 명분으로 내부적으로 인터넷의 민주적 기능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도 ‘디지털 관리장성’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검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종교의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종교활동은 시공한계를 타파하여 종교활동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종교의 현대화, 종교사상과 문화의 전파, 공익 자선사업의 발전에 매우 큰 긍정 효과가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인터넷 종교활동의 긍정적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문제는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하여 종교를 빙자한 온라인사기행위가 만연하고 미신과 사교, 불법 종교활동이 횡행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할까 봐 매우 걱정한다. 특히 종교 극단주의와 국외 종교세력이 침투하여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까 봐 매우 우려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종교활동을 검열하거나 규제해 왔고 심지어 이를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모든 국외 사이트는 중국 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2017년까지 약 13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폐쇄되고,¹⁾ 심지어 블로그와 웨이보 및 위챗(微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 또한 다수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종교 관련 인터넷매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안으로는 ‘디지털 사회주의’를, 밖으로는 ‘디지털 관리장성’을 구축하여 인터넷 종교활동에 대한 강고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7억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거느린 인터넷 강국답게 종교 관련 인터넷매체들이 검열과 규제를 극복하고 생존해 있기도 하고 또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챗 종교(2017년7월 개통)’ 같은 온라인매체가 새롭게 개설되는 등 정부 및 관변 단체의 인터넷 종교활동 또한 전개되고 있는 형세이다.

이처럼 중국의 인터넷 종교 매체와 그 활동은 현재 매우 특수하고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 인터넷 종교활동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종교+인터넷을 조합하여 국내 논문들을 조회하면 크게 두 가지 경향이 보이는데 하나는 종교조직 특히 기독교가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삼아 어떠한 선교전략을 펼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문이 다수를 점한다. ‘인터넷 선교방안’을 각 장과 절에 따로 세워 논의하고 있거나²⁾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³⁾ 또한, 어떤 논문은 특정 소수민족을

1) '2017“掃黃打非”抓網上主戰場：取締關閉網站近13萬個」(鳳凰網, 2018.01.04.), http://news.ifeng.com/a/20180104/54806533_0.shtml

2) 주향민, 『중국 청소년들에 대한 선교방안』, 수원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11.(제4장 인터넷을 통한 중국 청소년 선교) ; 이재호, 『중국선교의 역사 - 문화적 고찰과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대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중국선교의 과제와 선교전략 안에 인터넷 선교)

3) 배덕현, 『중국선교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 교육 방법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혁식, 『21세기 효과적인 중국선교 전략: 신학교 운영 방법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5 ; 송산, 『조선족을 통한 효과적 중국선교전략 연구: 산둥성 청다오지역을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대상으로 하는 선교전략 내에 인터넷 선교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⁴⁾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와 그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다. 일찍이 2001년 정재호가 법륜공이 인터넷에 의지하여 대정부 저항을 전개하고 그들의 문제를 국제화했음을 포착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개되는 법륜공의 저항운동과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의 과정들을 고찰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⁵⁾ 전희락과 오창우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정책과 그 정치적 의미를 연구하였다.⁶⁾ 또한, 중국의 인터넷 언론 규제체계⁷⁾와 시진핑 시대의 인터넷 관리체계⁸⁾를 살핀 연구도 있다.

중국의 연구결과는 CNKI에서 주제어를 宗教 + 互聯網 + 網絡로 검색하면 90여 종 이상의 논문이 검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래와 현재의 인터넷 종교 매체에서 보이는 부정적 현상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책을 제시하는 연구,⁹⁾ 인터넷종교가 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¹⁰⁾ 전통적 종교활동과 인터넷 종교활동 및 전통적 선교와 인터넷 선교 간의 차별성을 천착한 연구, 사이버공간에서의 종교활동의 가능성과 미래를 탐구하는 연구 등이 있다.¹¹⁾

요컨대, 한국에서의 연구는 중국 외부로부터의 인터넷선교전략 연구와 중국 내부의 인터넷 규제 현상 연구라는 대립성을 이루고 있다. 전자는 종교시장 개척을 목표로 삼은 연구로서 현재 중국종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현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체제를

- 4) 조규철, 『중국 소수민족 선교전략 연구: 조선족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4 ; 황상철, 『티벳 쟁곡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방법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 5) 정재호, 「파문공, 인터넷과 중국 내부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5집3호, 2001.
- 6) 전희락·오창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17호, 2010, pp.287-331.
- 7) 王雙, 『중국 인터넷 언론의 성장과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강원대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정의철, 「인터넷 규제와 정치공론장 - 구글의 중국진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008 ; 이민자, 「중국 온라인 공간의 주도권 쟁탈전: 국가-사회의 경쟁」,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4호, 2004 ; 이학수, 『중국의 온라인 정치참여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8) 고점우, 『시진핑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 관리체제 - 인터넷 안전, 여론유도, 격자망화(網格化) 관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고점우·백승욱, 「시진핑 시대의 인터넷 정책 - 네트워크 사회관리로 전환」, 『현대중국연구』, 19권1호, 2017.
- 9) 董棟, 「做好涉宗教網絡輿情工作」, 『中國宗教』, 2017(6) ; 李元元, 「網絡宗教安全問題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 2016 ; 董棟, 「關於我國網絡宗教事務管理問題的思考」, 『世界宗教文化』, 2016(10) ; 吳華, 「新媒體視域下的宗教傳播與社會治理研究——以佛教網絡群體為線索」, 『新聞界』, 2016(09) ; 石麗, 「網絡宗教、網絡社會與社會治理研究——以S市調研為例」, 『世界宗教文化』, 2016(10) ; 張立哲, 「虛擬社區宗教傳播治理問題研究」, 『新疆社會科學』, 2017(05) ; 趙冰, 「宗教的虛擬化傳播與國家安全研究」, 復旦大學(博士), 2011.
- 10) 陳亮, 「當代宗教的網絡傳播與青少年的數字化生存」, 『青年學報』, 2017(11) ; 周榮麗, 「高校網絡宗教對和諧校園的影響」, 『讀書文摘』, 2014(06) ; 張承安, 「電子傳播時代大學生網絡宗教生活解析」, 『科學與無神論』, 2012(09) ; 李偉波, 「現代傳播方式下的佛教人間化及其對青年的影響」, 『北京青年政治學院學報』, 2011(04).
- 11) 向蕾, 「藏傳佛教的網絡傳播與文化空間」, 華東師範大學(碩士), 2017 ; 張華, 「互聯網+時代的宗教新形態」, 『世界宗教文化』, 2016(08) ; 孫靜, 「新媒體視域下當代宗教傳播模式與傳播效果研究」, 中國科學技術大學(博士), 2015 ; 李一葦, 「信息時代下的佛教傳播——新媒體與中國當代佛教傳播之道」, 『世界宗教文化』, 2013(10) ; 黃少華, 「網絡穆斯林社群的宗教認同研究: 以中國穆斯林網站為例」, 唐名輝, 「宗教組織的網絡營銷研究」, 上海大學(博士), 2008 ; 施乃瑜, 「宗教傳播與化世的新範式」, 復旦大學(博士), 2008.

달리하는 한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언론과 표현 자유의 침해, 인터넷 쇄국주의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CNKI에 등록된 논문들은 연구 방향은 다양하나 그 기저에는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문제의식에 호응하고 당국의 종교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문헌의 취사선택과 연구의 논지가 해외의 시각을 견제할 뿐 아니라 해외의 자료까지 철저히 배제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흡수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돌파하고자 한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에서 출발하거나 종교적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연구는 철저히 지양한다. 중국 내부의 인터넷 종교 매체뿐 아니라 중국 외부의 중국 관련 인터넷 종교 매체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전방위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국 인터넷 종교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중국 당정의 종교에 대한 포용과 포섭 그리고 양자의 긴장 관계를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창의적 가치가 있다. 게다가 현대 중국의 가장 민감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화두 — ‘종교’와 ‘인터넷’을 프리즘으로 삼아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조망하는 것이니 당장에 필요한 실용적 가치가 있다. 이에 필자는 우선 중국에 인터넷이 개방된 이후¹²⁾ 중국 당정이 인터넷종교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해왔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통제와 검열로 인하여 종교 관련 인터넷매체에서 어떠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인터넷종교 정책

1) 시진핑 지도부 이전

개혁개방 이후 경제 우선 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선 보급, 후 통제’ 전략을 취해왔다.¹³⁾ 인터넷이 개방된 초기에는 중국 내의 인터넷 종교사이트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1년 이전까지 인터넷종교를 언급한 법률법규¹⁴⁾는 대체로 사교 집단의 인터넷 활동이나 국가 종교정책을 훼손하거나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겨냥하였으니, 대체로 종교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영역의 문제로 다루었다.¹⁵⁾

1999년 법률공¹⁶⁾ 사건 후 법률공은 인터넷으로 저항운동을 이어나가고 그들의 문제를 국

12) 1993년 중국정부가 중국과학원에 미국 에이티앤티의 위성망 임대를 허용하고 1995년에 중국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했다. 이어서 1996년 1월 中國電信은 인터넷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60(2),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p.458.

13) 임상범, 「‘응유진유’의 오기 그리고 5월35일: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 『성균차이나브리프』, 5(3), 성균중국연구소, p.136.

14) 중국종교에 대한 법제화 시도는 鄧小平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아·강경구의 「중국의 종교정책과 법치화수준의 제고 — 수정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중국학』, 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참조.

15) 濮靈, 「我國網絡宗教事務法治化管理進程研究」, 『世界宗教文化』, 2019(02), p.56.

16) 법률공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진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처음에는 중국 당정이 법률공을

제사회에 호소하였다. 2001년에 개최된 全國宗教工作會議에서 江澤民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형세가 자국의 종교공작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 조기 대응책을 마련할 것, 관련 정책과 법규를 완비할 것, 종교침투를 제어할 주도력을 장악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⁷⁾ 즉 처음으로 인터넷종교사무에 대한 법제화 및 ‘依法管理’가 직접적으로 요구되었고, 인터넷 종교를 이용한 국외 적대세력의 침투공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인터넷 관련 규정들이 순차적으로 제정·공포되었고, 그 안에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¹⁸⁾

통제와 검열은 지속하되 경제적 효용의 연결고리는 훼손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산업의 전략 하에 중국에서 인터넷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2007년에 와서는 5대 종교사이트가 모두 인터넷에 등장하였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나·텐센트 등의 포털사이트에 불교와 도교 등의 종교 카테고리도 개설되었고, 관변단체에 속하는 중앙과 지방의 각 종교협회의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에서 개설한 웹사이트들 또한 우후죽순 들어섰다. 종교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이에 대한 종교사무관리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중국 당정은 이를 도전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인식했다. 게다가 국외 ‘침투’를 제어하고 邪教를 막아야 하는 기존 임무 외에도 자국 내 인터넷종교의 신속한 전파가 ‘사회주의 의식형태 건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¹⁹⁾ 이때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관리규정(互聯網視聽節目服務管理規定)」 29개조를 공포하여 서비스 종사자의 자격부터 시작하여 동영상 제작·편집·배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정을 세웠다.²⁰⁾ 胡錦濤 또한 인터넷종교사무에 2004년 공포된 「종교사무조례」를 관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의법관리’를 강조했고, 나아가 인터넷 속의 다양화된 사상의식을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로써 인도할 수 있

심신수련을 도모하는 기공단체로 간주하고 호의를 보였으나 나중에는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邪教’ 단체로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탄압하기에 이른다. 법륜공은 이미 세계화되어서 현재에도 중국정부가 가장 견제하는 사교집단이고, 인터넷매체가 법륜공의 글로벌 확장에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다.

- 17) “江澤民同志在會議上強調，要特別要注意研究“互聯網迅速發展等新情況給我國宗教工作帶來的影響，及早制定應對措施，不斷完善有關政策和法規，牢牢掌握抵禦宗教滲透工作的主動權。”國家宗教事務局政策法規司編，《宗教政策法規文件選編》，北京：宗教文化出版社，2012，p.51.
- 18)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國務院令第292號)」(國務院公報，2000年34號)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0/content_60531.htm，「全國人大常委會關於維護互聯網安全的決定」(人文網，2000.12.29) <http://www.people.com.cn/GB/channel1/10/20001229/365770.html>，「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中國網，2002.07.15.) http://www.china.com.cn/zhuanti2005/txt/2002-07/15/content_5173506.htm，「互聯網新聞信息服務管理規定(信息產業部令 第35號)」(中央政府網，2005.09.29.) http://www.gov.cn/flfg/2005-09/29/content_73270.htm [2019.10.30.]
- 19) 이 시기에 ‘인터넷과 사회주의 의식형태 건설’을 논한 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田貴平，『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中的網絡文化研究』，天津師範大學(博士)，2006；左旭生·王斯琴：『網絡宗教行為及管理對策淺析』，『中國民族報』，2007.10.09.；劉陽，『網絡意識形態工作：挑戰與對策』，『新視野』，2008(03)；楊軍，『網絡時代我國意識形態面臨的衝擊及對策』，『宿州教育學院學報』，2008(02)；劉忠厚，『淺談信息網絡時代社會主義意識形態建設的挑戰與對策』，中共中央黨校 2008(06)；江淑麗，『加強社會主義意識形態網絡宣傳陣地建設』，『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11)；鄭潔，『網絡時代社會主義意識形態研究綜述』，『新疆社科論壇』，2010(10) 등.
- 20) 「互聯網視聽節目服務管理規定」(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第56號，2007.12.20. 공포，2008.01.31. 시행) http://www.gov.cn/flfg/2007-12/29/content_847230.htm [2019.10.30.]

도록 중국 특색의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²¹⁾

2008년 3월 티베트, 2009년 7월 신장에서 대규모의 유혈충돌사태가 발생했는데²²⁾ 중국 당정은 이를 종교극단사상의 영향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방어 및 억제 규정을 인터넷종교사무 의법관리의 중점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규정을 공포하였다. 즉 인터넷에 강력한 통제관리 플랫폼을 세워서 허가받지 않은 동영상과 문헌을 등록 불가하게 하고 이로써 종교극단주의를 고취하고, 각 종교와 교파 및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중 정서를 위해하는 것들을 제어해야 하고 아울러 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모든 가정에 송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터넷문화 건설에 치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이처럼 인터넷의 발전과 국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종교에 대한 법제화와 의법관리가 매우 필요했고 그래서 중국 당정은 관련 규정들을 속속히 제정해 왔다. 그러나 王作安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이 지적한 바, ‘입법’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각 규정에 사무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²⁴⁾ 특히, 2004년에 공포된 「종교사무조례」에도 인터넷종교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2) 시진핑 지도부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인터넷 인구 특히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²⁵⁾ 이때 시진핑 정권이 출범했는데 인터넷종교에 대한 통제 요구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졌고 법제화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의법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2012년에 왕작안은 가상세계로 확장된 종교가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외 침투세력과 종교극단주의의 온라인 활동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가종교사무국이 빨리 인터넷종교와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종교활동장소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고 지도할 것, 온라인 종교활동장소라는 새로운 현상과 그 관리방법을 조사하고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²⁶⁾

21) 「胡錦濤主持政治局第2次集體學習強調做好宗教工作」, (中央政府網, 2007.12.19.) http://www.gov.cn/jd/hd/2007-12/19/content_838664.htm [2019.10.30.]

22) 이 지역의 저항운동은 최근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티베트에는 계속해서 승려들의 분신 자살이 이어졌고 신장에서는 크고 작은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국정부의 긴장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외 2011년에는 內蒙古자치구에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한족과 현지 유목민 간의 갈등이 쌓여 반중시위가 발생했고, 2012년에 山東省 德州 寧津縣에서 回族이 漢族을 공격하는 폭동이 발생하는 등 소수민족 중심으로 매년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23) 「關於加強互聯網視聽節目內容管理的通知」, (中央政府網, 2009.04.02) http://www.gov.cn/govweb/gzdt/2009-04/02/content_1275431.htm [2019.10.30.]

24) “在依法管理方面, …… 對網絡虛擬宗教活動場所等新出現的現象還沒有制定相應的規定, 現有政策法規的約束力不強, 執行監督力度不夠, 基層執法主體不健全的現象較為普遍存在。” 王作安, 「把握規律 開拓創新 做好新形勢下宗教活動場所管理工作」, 『中國宗教』, 2012(6), p.6.

25)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52.2%에 달하며 세계 인터넷 인구의 21.1%에 해당한다고 한다.(김진용, 위의 논문, p.458.) 그 중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7억 8,774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인터넷사용자 가운데 모바일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98.3%에 이른다고 한다.(이중희·김경환, 「중국의 인터넷서비스와 모바일혁명(2011-2018년)」, 『아시아연구』, 22(1), 한국아시아학회, 2019, p.164.)

이에 따라 인터넷 및 인터넷종교 사무에 대한 법치화 요구는 본격적으로 강화단계에 들어갔다. 중국정부는 2012년 3월에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특히 2015년에 「中華人民共和國國家安全法」²⁷⁾, 「中華人民共和國反恐怖主義法」²⁸⁾을 공포하면서 인터넷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인터넷업무와 종교업무 모두가 국가안보와 반테러리즘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새로운 형세에 적합한 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인터넷종교사무 법제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하여 국가종교사무국은 「인터넷종교사무 법치건설에 관한 의견(關於加強網絡宗教事務法治建設的意見)」을 발표했으니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인터넷종교 사무관리에 전문적인 부서를 배치하고 분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규범화되고 효율적인 ‘의법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²⁹⁾

2016년 시진핑은 ‘인터넷보안 및 정보화 좌담회(網絡安全和信息化工作座談會)’와 全國宗教工作會議에서 “인터넷종교 문제를 중시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당의 종교이론과 방침·정책을 선전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³⁰⁾는 주장을 발표했다. 바로 이어서 무려 79개조에 달하는 중국 최초의 사이버보안법 「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이 공포되었는데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같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 사이버 안전의 수칙을 명확히 규정하고,³¹⁾ 위배행위에 대한 법률책임도 명시했다(第6章). 이로써 인터넷보안 문제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이니 인터넷을 이용한 종교활동에도 상응하는 법적

26) “對宗教活動場所設立的網站要加強管理，積極引導，幫助形成自律機制。對網上‘虛擬宗教活動場所’進行調研，研究管理意見。”王作安，위의 글，p.8.

27) 「中華人民共和國國家安全法(主席令第29號)」(2015년 7월 1일 공포 및 시행)의 제25조에 관련 내용이 있다. “第二十五條：國家建設網絡與信息安全保障體系，提升網絡與信息安全保護能力，……，實現網絡和信息核心技術、關鍵基礎設施和重要領域信息系統及數據的安全可控；加強網絡管理，防範、制止和依法懲治網絡攻擊、網絡入侵、網絡竊密、散布違法有害信息等網絡違法犯罪行為，維護國家網絡空間主權、安全和發展利益。”(中央政府網，2015.12.28.) http://www.gov.cn/xinwen/2015-07/01/content_2888316.htm [2019.10.30.]

28) 「中華人民共和國反恐怖主義法」(2015.12.27. 공포, 2016.01.01. 시행)의 제19조에 관련 내용이 있다. “第十九條：電信業務經營者、互聯網服務提供者應當依照法律、行政法規規定，落實網絡安全、信息內容監督制度和技術防範措施，防止含有恐怖主義、極端主義內容的信息傳播；發現含有恐怖主義、極端主義內容的信息的，應當立即停止傳輸，保存相關記錄，刪除相關信息，並向公安機關或者有關部門報告。”(中央政府網，2015.12.28.) http://www.gov.cn/xinwen/2015-12/28/content_5028407.htm [2019.10.30.]

29) 국가종교사무국은 2015년 5월 21일에 「關於加強網絡宗教事務法治建設的意見」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进一步完善宗教事務管理制度體系’，‘全面推進依法行政’，‘加強法治宣傳教育’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터넷종교사무 법치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https://baike.baidu.com/> [2019.10.30.]

30) “要高度重視互聯網宗教問題，在互聯網上大力宣傳黨的宗教理論和方針政策，傳播正面聲音。”「習近平：要高度重視互聯網宗教問題」(中國幹部學校學習網，2016.04.24.)，<http://www.ccln.gov.cn/hotnews/183188.shtml> [2019.10.30.]

31) 2016.11.07. 공포, 2017.06.01. 시행. “第十二條 …… 任何個人和組織使用網絡應當遵守憲法法律，遵守公共秩序，尊重社會公德，不得危害網絡安全，不得利用網絡從事危害國家安全、榮譽和利益，煽動顛覆國家政權、推翻社會主義制度，煽動分裂國家、破壞國家統一，宣揚恐怖主義、極端主義，宣揚民族仇恨、民族歧視，傳播暴力、淫穢色情信息，編造、傳播虛假信息擾亂經濟秩序和社會秩序，以及侵害他人名譽、隱私、知識產權和其他合法權益等活動。”(中央政府網，2016.11.07.) http://www.gov.cn/xinwen/2016-11/07/content_5129723.htm [2019.10.30.]

준칙이 규범화되고 명확해진 것이다.

나아가 2004년 11월에 반포한 「종교사무조례」 7장 48개조를 13년 만에 개정하여 2017년 9월에 9장 77개조의 개정안³²⁾을 공포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에 관한 조목들을 신설해 놓았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파괴하고”, “다른 종교 간의 화목 및 종교 내부의 화목을 파괴하고”, “신앙인 혹은 비신앙인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하고”, “종교의 독립·자주·자영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제48조)을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요건(제47조)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처벌(제68조)을 적시하는 등 세부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종교 사무관리를 총체적으로 법제화했다. 이처럼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에 명확한 규정이 갖추어짐으로써 인터넷종교사무의 ‘의법관리’는 보다 더 구체성을 갖추게 되었다.³³⁾

2018년,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종교사무국이 통전부(統一戰線工作部)에 흡수되었다. 이는 바로 당이 나서서 종교사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니 지금의 중국 당정이 종교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다.³⁴⁾ 동시에 「인터넷종교정보관리방법(互聯網宗教信息管理辦法)」 27개조를 18년 만에 5장 35개조로 개정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문건(征求意见稿)」³⁵⁾을 공포했다. 초안의 제3·4·6조와 제34조는 새롭게 증설된 조항으로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종교화목과 사회화합을 수호하기 위해서 당이 인터넷종교사무에 집중적이고도 통일된 지도를 하겠다는 목적을 천명한 것이다.³⁶⁾ 또한 각각 독립된 장을 세워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심사비준(第2章)’ ‘인터넷종교정

32) 「신종교사무조례」는 중국 당정이 종교 주도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한 것이며, 위헌성과 입법 위반성이 있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강경구·김경아,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 이론의 고찰」,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p.16.

33) “第四十八條: 互聯網宗教信息服務的內容應當符合有關法律、法規、規章和宗教事務管理的相關規定。互聯網宗教信息服務的內容, 不得違反本條例第四十五條第二款的規定。” “第四十五條第二款: 壞信教公民與不信教公民和睦相處的; 破壞不同宗教之間和睦以及宗教內部和睦的; 歧視、侮辱信教公民或者不信教公民的; 宣揚宗教極端主義的; 違背宗教的獨立自主自辦原則的。” “第四十七條: 從事互聯網宗教信息服務, 應當經省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審核同意後, 按照國家互聯網信息服務管理有關規定辦理。” “第六十八條: 涉及宗教內容的出版物或者互聯網宗教信息服務有本條例第四十五條第二款禁止內容的, 由有關部門對相關責任單位及人員依法給予行政處罰; 構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責任。擅自從事互聯網宗教信息服務或者超出批准或備案項目提供服務的, 由有關部門根據相關法律、法規處理。” 「宗教事務條例(國務院令第六八六號)」 (中央政府網, 2017.8.26.),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019.10.30.]

34) 2018년 3월 21일에 공개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에 따르면, 당 중앙선전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이 당 통일전선공작부에 흡수되어 당의 종교관리 감독이 더욱 선명해졌다.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國家民族事務委員會와 해외 화교 업무를 맡는 國務院僑務辦公室도 통전부에 통합됐다. 당원, 비당원 모두를 감찰대상으로 할 수 있는 國家監察委員會의 활동도 시작됐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업정보화부의 ‘국가 컴퓨터인터넷과 정보안전관리센터’를 산하 단체로 편성한 것도 당이 직접 인터넷·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겠다는 의도이다.

35) 원래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은 2000년 9월 20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5일에 공포되었고 총 27개 조이다. 2018년에 35개 조로 증설한 초안을 공포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征求意见稿)」 (國家宗教事務局, 2018.09.10.) <http://www.mzb.com.cn/html/report/180930902-1.htm> [2019.10.30.]

36) 개별 조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 종사자는 사회주의핵심가

보서비스관리(第3章), ‘법률책임(第4章)’을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이는 바로 「신종교사무조례」 제47·48·68조를 구체적으로 심화한 것이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인터넷과 종교를 국가안보 문제로 끌어올림으로써 인터넷종교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고, 인터넷종교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규범화함으로써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에 ‘의법관리’를 폭넓게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3. 중국 인터넷종교 현황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인터넷에서 중국어로 된 종교사이트는 30만 개 정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사이버 보안법으로 수많은 사이트와 계정이 폐쇄되거나 차단되었음에도 중국 내에서만 해도 5대 종교사이트가 무려 4000여 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³⁷⁾ 그 외 웨이보(微博)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위챗(微信)그룹이나 QQ그룹 등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종교활동까지 헤아리면 인터넷종교 활동은 이미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본 연구의 주제는 중국의 인터넷종교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중국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차단했으나 중국 외에서 검색 가능한 온라인 영역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전자는 주로 중국 정부의 ‘依法管理’를 준수하는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를 의미하고, 후자는 주로 중국 정부에 의해 ‘극단’ 및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에 의한 종교활동이다. 필자는 2017년부터 이 논문을 구상하면서 인터넷종교매체의 활동을 주시해 왔다. 지금까지 검색·수집·분석한 결과에 기대어서 중국의 인터넷종교 활동을 그 서비스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대별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가종교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지방 종교사무부서의 사이트, 애국종교단체 및 그 산하의 종교활동장소에서 개설한 사이트가 있다. 둘째, 학술 및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전문적인 인터넷종교 사이트가 있다. 셋째, 포털사이트에서 부분 개설한 종교 관련 웹페이지나 BBS같은 커뮤니티, 종교교역자와 신앙인 혹은 종교애호가들이 웨이보, 위챗과 같은 소셜미디어플랫폼에 개설한 개인사용자계정 등이 있다. 넷째, 종교 ‘극단’ 및 ‘이단’세력이 개설한 반정부적

치관을 실천해야 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하고, 국가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를 통해 당의 종교이론과方针政策 및 종교 관련의 법률·법규·규장을 선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6조 “종교업무부문이 법에 따라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를 관리감독하고 網信部門, 電信主管部門, 公安部門, 國家安全集團 등 각 기관이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성급 이상 종교공작부문은 마땅히 이러한 부문과 회동하여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관리협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 외에 제15조 제1항에서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가 “국가전복 선동, 공산당영도 반대, 사회주의제도 전복, 국가 분열, 국가통일 및 사회안정 파괴, 극단주의·테러리즘·민족분열주의·종교적 광기의 선양 등을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37) 張華·張志鵬, 「互聯網+時代的宗教新形態」, 『世界宗教文化』, 2016(04), p.21.

인터넷종교 매체가 있다.

위의 네 단계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종교 활동을 고찰하면, 뚜렷한 경향성과 유의미한 변별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당국과 관변단체의 사이트에는 중국 당정이 추진하는 종교정책의 지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종교사이트와 개인계정에서는 정부와 종교 간의 긴장 관계와 종교계의 다양한 추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검열을 피하여 게릴라성 활동을 하거나 해외 온라인망에 개설된 사이트들은 중국종교정책에 대한 저항을 기조로 삼고 있으니 향후 중국 종교의 또 다른 가능성을 내비친다고 볼 수 있다.

1) 정부 및 관변단체의 종교사이트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교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종교에 관한 공적 기관이 없다. 반면, 중국에서 종교는 ‘법에 따라 관리되는(依法管理)’ 대상으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심지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종교 관련 정부 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른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國家宗教事務局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는 종교사무국이나 종교사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³⁸⁾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방정부의 유관부서와 연계할 뿐 아니라 심지어 5대 종교협회(불교·도교·천주교·기독교·이슬람교)와 YMCA·YWCA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종교정책을 전파하고 종교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종교사무국³⁹⁾의 홈페이지는 정책뉴스와 법규, 종교정보와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⁴⁰⁾ 그 중 종교백과 속의 종교지식, 종교연구, 종교단체제도 등은 종교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 제도에 각 종교의 章程·規約·規定, 교역자의 임직·초빙 및 자격인정 처리 법과 종교활동 장소 관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가종교사무국 산하의 5대 종교협회 또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협회마다 각자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았다.⁴¹⁾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각 종교협회의 웹사이트는 그 중지 안에 각 종교의 특성에 따른 취지와 함께 공통의 중

38) 1979년에 國務院 휘하의 宗教事務局으로 부설되었다가 1998년 3월에 國家宗教事務局으로 개명되었다. 2018년에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부에 병입되었다.

39) 1950년에 政務院문화교육위원회 아래에 ‘종교문제연구소’를 두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문제와 종교 상황을 주로 연구했다. 1951년에 政務院문화교육위원회종교사무처 설치를 결정하고, 1954년 국무원에 수립되면서 그 산하에 국무원종교사무국을 설치하여 국무원직속기구의 하나로 삼았다. 1957년 국무원종교사무국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였다. 1961년에 中공중앙통전부가 ‘중공중앙통전부종교처’를 설립하여 국무원종교사무국과 합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1975년에 국무원종교사무국을 폐지하고, 1979년에 국무원종교사무국을 다시 회복했다. 1998년3월24일 국무원 산하의 종교사무국을 ‘국가종교사무국’으로 개명, 2004년에 국가종교사무국에 ‘業務四司’를 증설하여 5대종교 외의 기타 종교의 업무 처리, 종교학교 관리, ‘사교’ 문제 조사연구 등을 도맡았다. 이로써 처음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의 업무는 5대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2018년 3월 21일에 통전부는 국가종교사무국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 합병하였다. <https://zh.wikipedia.org/wiki/> [2019.10.30.]

40) 國家宗教事務局 <http://www.sara.gov.cn> [2019.10.30.]

41) 中國佛教協會, <http://www.chinabuddhism.com.cn/>; 中國道教協會 <http://www.taoist.org.cn/> <http://www.taoist.org.cn/loadData.do>; 中國天主教協會, <http://www.chinacatholic.cn/> 中國基督教兩會 <http://www.ccctspm.org/> <http://www.ccctspm.org/> 中國伊斯蘭教協會 <http://www.chinaislam.net.cn/index.html> [2019.10.30.]

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신앙인들을 愛國愛教하도록 인도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국가의 헌법과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적극 적응하도록 한다”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종교화목, 민족단결, 사회화합, 조국통일, 세계평화 수호에 공헌한다”는 등 공통의 종지를 내걸고 있다.

그런데, 2018년 3월 당은 「당·국가 기구개혁 심화 방안(深化党和國家機構改革方案)」을 배포하면서 국가종교사무국을 중공중앙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흡수하고 명패만 남겨 놓았다. 대신 통전부는 홈페이지의 상단에 메인메뉴의 하나로 ‘宗教事務’를 설치했고,⁴²⁾ 그 안에 각종 종교 관련 뉴스, 종교문화, 종교인물, 종교지식, 중국종교 등의 소메뉴를 넣었다. 최근에 국가종교사무국 홈페이지를 재개편하여 다시 살려 놓았다. 새롭게 개편된 국가종교사무국 홈페이지는 ‘要聞動態’·‘信息公開(法律法規·部門規章·規範性文件·行政許可)’·‘宗教百科(宗教政策·宗教知識·宗教研究·宗教團體制度)’·‘宗教基礎信息查詢系統(最新動態·宗教院校基本信息·宗教活動場所基本信息·藏傳佛教活佛查詢)’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주요뉴스 다음에 법률·법규와 규장 및 종교정책을 전면 배치해 놓고 있으니 종교사무에 대한 의법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5대종교협회 사이트 또한 대부분 ‘뉴스’ 메뉴 다음에 ‘제도·법규’를 배치해 놓고 있다.

종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온라인 활동은 ‘의법관리’로써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종교문제에 관한 선전의 도구로서도 인터넷의 적극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 현재 중국 당정은 反邪教網을 운영하면서 ‘反邪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中國反邪教網’과 ‘中國反邪教協會’는 다른 단체이다. ‘중국반사교협회’는 200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운영주체에 대한 중국 당국과 해외의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당국은 사교를 반대하는 중국의 과학, 사회과학, 의학, 법률, 종교, 신문방송 등의 각계 전문가와 저명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과학과 인문정신의 발양과 법률의 수호를 위해 설립한 민간공익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⁴³⁾ 그러나 해외에서는 원래 법률공 진압을 목적으로 설립한 ‘610辦公室’이 그 전신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正部級 직속기구로서 기본적으로 당원과 정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의 모든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2017년 9월 22일, 중국정부는 국무원 산하 ‘사교문제 방범처리 사무실(防犯和處理邪教問題辦公室)’이 주관하는 中國反邪教網⁴⁵⁾과 공식 웨이보 및 위챗을 개통하고, 동시에 ‘사교 거부 운동(對邪教說不)’라는 온라인 서명 이벤트를 진행했다.⁴⁶⁾ 이는 정부에 의한 전국적인 반사교

42)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部(宗教事務) <http://www.zyztzb.gov.cn/zjsw/index.jhtml> [2019.07.20.]

43) 中國反邪教協會의 영문명은 China Anti-Cult Association. 그 종지는 다음과 같다. 과학과 인문정신 홍양, 법률 수호, 종교신앙자유 존중한다. 과학기술·사회과학·종교·법률·신문방송 등 각계의 사회인사들과 단결한다. 사교조직은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에 위해가 되고, 사회공공질서를 교란하고, 법률시행과 사회안정을 파괴한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교조직을 반대하고, 사교조직에 대한 대중의 경각성·감별력·방어능력 향상에 치력한다. <https://baike.baidu.com/> [2019.10.30.]

44) 中國反邪教協會 <https://zh.wikipedia.org/wiki/> [2019.10.30.]

45) 中國反邪教網 <http://www.chinafxj.cn/> [2019.10.30.]

46) 「中國反邪教“一網兩微”今天正式上線」(中國新聞網 2017.09.22.) <http://www.chinanews.com/gn/2017/09-22/8337544.shtml> [2019.10.30.]

운동의 플랫폼으로서 그 취지는 자국 내의 사고 확산과 사고 관련 범죄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사고들에 대한 관련 정보와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지도 및 실종자를 찾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불법 및 범죄 행위 신고에 편리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놓았다. 인터넷 외에도 웨이보와 위챗 등 모바일 플랫폼에도 개설하여 반사고 운동을 더욱 효율적 전개하고 네티즌의 관심에 신속히 호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중국반사고망 하단에는 凱風網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 반사고망이 링크되어 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인 610관공실에서 개설한 것으로 추정⁴⁷⁾되는 凱風網은 사고와 미신을 반대하고 건강한 정신문화의 건설, 우수한 전통문화의 육성을 중지로 삼고 있는데 그 지명도와 영향력이 가장 큰 반사고 포털사이트로서 중국어, 영어 등 7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⁴⁸⁾ 그 외 天津의 海河網, 浙江의 錢江潮網, 산동의 山東反邪教網, 하남의 凱風河南網 등 다수의 지역별 반사고망이 고정 및 모바일 인터넷에 개설되어 적극적으로 반사고운동을 개진하고 있다. 얼핏 보면 중국 정부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중국 정부의 종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지라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순수한 민간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상, 정부 및 관변단체의 종교 사이트 및 반사고 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여러 자료와 정보들에서 중국 종교의 현황과 정책, 중국 당정의 종교 인식, 인터넷을 활용한 종교여론 주도, 종교에 대한 적극적 통제와 관리의 의도 등을 읽을 수 있다.

2) 학술 및 종교단체의 종교 전문사이트

종교 전문사이트는 中國民族宗教網, 中國宗教學術網, 普世社會科學研究網 등의 종합적인 전문사이트를 거론할 수 있다.⁴⁹⁾

중국민족종교망은 中國民族報社가 주관하는 종합적 플랫폼으로 ‘最新播報’, ‘關注’, ‘理論’, ‘民族文化’, ‘宗教文化’, ‘工作動態’, ‘民族宗教社團和院校’, ‘政策法規’, ‘民族宗教知識’, ‘中國民族報電子版’ 등의 메뉴를 개설해 놓고 소수민족, 소수민족거주지, 종교계를 대상으로 민족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準관변단체로서 민족종교업무에 복무함으로써 민족단결을 추동하고 소수민족문화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중지로 삼는다. 중국 내 다양한 민족종교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전면적인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므로 종교 관련 사이트 중에서 최고의 검

47) 凱風網(www.kaiwind.com) <https://zh.wikipedia.org/zh-hant/%E5%87%AF%E9%A3%8E%E7%BD%91> [2019.10.30.]

48) 凱風網은 2006년 5월에 개설되었다. 파룬궁을 비판하는 민간사이트라고 주장하나 일각에서는 중공 610관공실에서 창설했다는 의견이 있다. 四川瀘縣人民政府公衆信息網의 어느 정부문건에서는 610관공실이 ‘민간의 형식’을 취해 카이펑망을 개설하여 파룬궁을 비판하고, 省市縣에서는 카이펑망에 원고를 써넣는 것으로 목표 고과에 반영한다고 했다. 카이펑망에 선택된 선전적 성격의 원고가 500자가 넘으면 500위안, 500자에 미치지 못한 것은 400위안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基督教百科」<https://bible.world/%E5%87%AF%E9%A3%8E%E7%BD%91> [2019.10.30.]

49) 中國民族宗教網 <http://www.mzb.com.cn> ; 中國宗教學術網 <http://iwr.cass.cn> ; 普世社會科學研究網 <http://www.pacilution.com> [2019.10.30.]

색률을 자랑한다.

다민족이 집결된 대도시에서도 인터넷으로 ‘민족과 종교’를 관리를 하는데 그 일례로 上海市民族和宗教事務局가 운영하는 上海市民族和宗教網을 들 수 있다.⁵⁰⁾ ‘政府信息公開’, ‘上海民族’, ‘上海宗教’, ‘政策法規’, ‘網上辦事’, ‘便民服務’ 등의 메뉴를 개설해 놓고, 상해 내의 민족과 종교, 민족 및 종교에 대한 정책법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사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유일의 국가급 종교학술연구전문기관 中國社科院世界宗教研究所가 주관하는 중국종교학술망은 마스주의 종교관과 5대 종교를 비롯하여 종교이론, 종교예술, 종교와 정치, 종교와 철학, 종교와 민족, 종교와 경제, 종교와 국제관계 등 종교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급 학술사이트이다. 古今中外的 모든 종교의 교의·경전·역사·현황, 종교학의 기초이론, 종교와 중국전통문화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국내외의 상황을 넓고 깊게 이해하여 국가의 현대화와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 복무함을宗旨로 삼고 있다.

보세사회과학연구망은 종교와 법치 연구에 종사하는 유일한 민간학술기관 北京普世社會科學研究所에서 주관한다. 종교관찰, 학술동태, 정교관계, 종교와 국가, 종교와 정치, 종교입법, 법률해독, 종교재산, 종교와 경제, 종교와 자선, 종교와 법률, 종교와 국제사무 등에 관련된 학술연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사구시하는 과학적 태도로써 ‘종교와 법치’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국가 종교입법의 발전과 법치건설을 추동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 촉진에 힘을 쓸 것을宗旨로 삼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에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률과 법규, 공공도덕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내걸고 있는데, 해당 연구소의 승인을 받은 학술적 비판의 글이라도 정부의 정책과 법규에 민감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을 경우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⁵¹⁾

그 다음, 각 종교의 종교조직이나 종교활동장소가 개설한 종교전문사이트를 들어보겠다. 중국어권 인터넷종교 사이트에는 불교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⁵²⁾ 불교 웹사이트는 2014년 말 600여 개에 근접하고 그중 영향력 있는 불교 웹사이트가 이미 200여 개에 이르렀다.⁵³⁾ 현재에도 불교협회에 소속된 佛教在線, 弘善佛教網⁵⁴⁾ 등의 3대語系⁵⁵⁾ 종합사이트에서부터 法門

50) 上海市民族和宗教網 <http://mzzj.sh.gov.cn/> [2019.10.30.]

51) 맑시즘 연구가 瞿五一이 종교를 비판하는 논문에 대해 한 연구가가 무신론극단주의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警惕以瞿五一为代表的無神論極端主義」)이 게재되면서, 논자와 瞿五一 사이에서 몇 차례의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두 사람의 글이 해당 온라인게시판에서 삭제되었다.

52) 중국 전 지역의 모든 종교를 망라하여 인터넷종교 매체의 규모를 밝힌 글은 보이지 않지만 2016년의 상해를 예로 들어서 인터넷종교의 종교별 규모를 참고할 수 있다. 인터넷종교서비스를 웹사이트와 위챗퍼블릭넘버(微信公眾號)로 구분하면, 2016년에 상해종교계에는 30개의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시급종교단체가 불·도·천주교 3개, 종교활동장소가 26개, 종교학교가 1개(화동신학원)이다. 종교별로는 불교웹사이트가 23개, 도교웹사이트가 4개, 기독교웹사이트가 2개, 천주교웹사이트가 1개이다. 현재 위챗퍼블릭넘버가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종교활동장소와 종교단체, 특히 종교교역자가 위챗퍼블릭넘버를 개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上海城隍廟 위챗퍼블릭넘버의 구독자는 이미 1,2만 명이 넘었고 등록된 정보의 조회수가 2000회 이상이다. 石麗, 「網絡宗教、網絡社會與社會治理研究——以S市調研為例」, 『世界宗教文化』, 2016(10), p.20.

53) 孫靜, 「新媒體視域下當代宗教傳播模式與傳播效果研究」, 中國科學技術大學(博士) 2015, p.30.

54) 佛教在線 <http://www.fjnet.com>; 弘善佛教網 <http://www.liaotuo.org>

55) 3대어계 불교는 한전불교의 한어계, 장전불교의 티벳어계, 남전불교의 팔리어계를 말한다.

寺, 龍泉寺, 平興寺 등 각 지역 유명한 사찰의 웹사이트가 다수 상존해있다.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비영리성 사이트가 대부분이지만 전국불교협회의 지지와 각 지역 200여 곳의 사찰과의 합작으로 탄생한 菩薩在線 같은 영리성 사이트의 활약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⁵⁶⁾ 즉,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적극적인 종교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영리성 종교사이트가 만들어졌고, 비영리성 인터넷종교 매체와 적극 호응하면서 온라인 경전 교실과 사이버 예배당이나 다국어 서비스를 개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종교 전문사이트의 규모를 갖추었다.⁵⁷⁾ 그러나 현재는 전면 개편되어 ‘온라인 포교’ 성격이 강한 온라인 경전 교실, 사이버 예배당, 다국어 서비스는 모두 사라지고, 웹페이지의 구성이 불교협회에 소속된 사이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藏傳佛教는 중국불교협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수를 점하는 漢傳佛教와 달리 中國西藏信息中心과 佛教在線網이 공동주관하는 藏傳佛教網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타는 中國西藏之聲網站과 中國西藏網 내에서 藏傳佛教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수준이다.⁵⁸⁾ 도교의 경우 불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사이트 개설의 전반 상황이 불교와 비슷하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는 각 지역협회에 소속된 지역 종교활동장소의 웹사이트가 존재한다. 특히 기독교에 福音時報라는 전국적 저널사이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⁹⁾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성 정보사이트이고, 각 성·자치구·직할시에 地區版을 갖추고 각 지역의 종교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의 가정교회와 천주교의 지하성당은 중국정부에 의해 불법종교단체로 간주되어 공식 웹페이지를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웨이보(微博), 위챗(微信)그룹과 QQ그룹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현재 전방위적 단속과 고발 운동으로 그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슬람교의 경우는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웹페이지가 많지 않다. 中國清真網과 穆斯林在線은 종합적인 대중포털사이트로서 부분적으로 종교 항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⁶⁰⁾ 종교성 사이트로는 중국 최초의 이슬람 종교사이트 伊斯蘭之光과 인터넷 최대 규모의 이슬람교 논단 中穆王이 있다.⁶¹⁾ 그 중 中穆王은 2016년 해외유학생들이 귀국유학생 權平和 기타 양심범의 석방을 시진핑에게 요구하는 공개서신을 등록하였는데, 이것이 SINA 웨이보에 신고당하면서 그해 12월10일 차단되었다고 한다.⁶²⁾

이상, 학술적 종교사이트와 종교 전문사이트를 고찰하면 중국 종교계의 학술적 방향과 중

56) 菩薩在線 <http://www.pusal23.com>

57) 필자가 이 논문을 구상했던 2017년에는 적지 않은 종교사이트 안에서 사이버 예배당, 온라인 경전 교실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관련 코너들이 전면 삭제되었다.

58) 藏傳佛教網 <http://zcfj.fjnet.com/> ; 中國西藏之聲網站 <http://www.vtibet.com> ; 中國西藏網 <http://www.tibet.cn/cn/religion/> [2019.10.30.]

59) 福音時報 <http://www.gospeltimes.cn> [2019.10.30.]

60) 中國清真網 <http://www.duost.com> ; 穆斯林在線 <http://www.muslimwww.com> [2019.10.30.]

61) 伊斯蘭之光 <http://www.norislam.com> ; 中穆王 <http://www.2musilim.com> [2019.10.30.]

62) 「中穆網疑刊載海外留學生致習近平公開信遭封殺」(RFA新聞, 2016.12.12.) <http://www.rfa.org/cantonese/news/website-12122016084454.html> [2019.10.30.]

교적 지향이 중국 당정의 통제와 길들이기에 따라 순응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별로 개설되거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이트의 총량을 보면, 특정 종교에 대한 중국 당정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신종교사무조례」와 「인터넷종교 정보관리 방법(의견수리 문건)」에서는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 종사자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실천해야 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하고, 국가 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개 명시했고, “국가는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를 통해 당의 종교이론과 방책정책 및 종교 관련의 법률·법규·규장을 선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이로 인하여 종교 전문사이트의 활동양상은 뚜렷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종교협회에 소속된 이른바 애국종교단체의 사이트는 상기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가는 중이고, 민간의 종교사이트는 대부분 2017년 이후 활동이 끊겼거나 최소한의 활동만 진행하고 있다. 가령 基督教中文網, 阿們網, 中國福音影視網의 경우 공식 계정은 유지되고 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찬송가나 성경의 내용만 매일 혹은 간헐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외에 기타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⁶³⁾

3) 포털사이트, 블로그, 개인 SNS 공간에서의 종교활동

중국을 불교를 우수한 전통문화로 간주하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어 대형포털 사이트에 新浪佛學, 網易佛學 같은 ‘불학’ 카테고리는 유지되고 있고 ‘불학입문’, ‘불법으로 세상을 보다’, ‘불학문화’ 등의 메뉴가 개설되어 풍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⁶⁴⁾ 그 외의 종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웨이보종교 카테고리에는 불교, 도교, 기독교 카테고리만 남아있고 각 종교 카테고리 내에서도 계정만 올려진 채 내부의 온라인 활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⁶⁵⁾

중국에서 종교는 지정된 구역과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그리고 지정된 종교교역자에 의해서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웹사이트 또한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만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종교교역자들은 개인명의로 블로그나 웨이보(微博), 위챗(微信)그룹과 QQ그룹 같은 SNS에 개인계정을 개설하여 종교신앙을 전파하고 인터넷신앙공동체를 꾸려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률 급증과 함께 QQ와 위챗 같은 SNS에서의 종교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는데 종교단체 다수가 퍼블릭넘버(公眾號)를 개설하고 종교계의 유명인사들의 퍼블릭넘버도 속속히 개설되어 광범위한 종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신앙인 뿐 아니라 종교에 관심을 둔 사람들도 개인계정으로 종교 관련 글을 올리거나 종교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종교적 담론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당연히 공식적인 웹사이트나 퍼블릭넘버

63) 基督教中文網 <http://www.jidujiao.com> ; 阿們網 <http://www.lamen.com/> ; 中國福音影視網 <https://www.fuyin.tv/index.html> [2019.10.30.]

64) 新浪佛學 <http://fo.sina.com.cn/> ; 網易佛學 <http://gs.news.163.com/special/03351H4B/fxue.html> [2019.10.30.]

65) 微博宗教 <https://d.weibo.com/> 佛教 240여 곳, 道教 40여 곳, 基督教가 20여 곳이 남아있는데 특히 기독교의 경우 계정과 닉네임만 올려져 있고, 활동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를 개설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정교회와 천주교의 지하성당 또한 오로지 개인SNS에 의지하여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⁶⁶⁾

그런데, 중국 당정은 2017년에 공포한 「신종교사무조례」(2018년 시행)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에 관한 조항(제47, 48조)을 신설하여, 그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한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웹사이트와 웹페이지 등이 폐쇄되었을 뿐 아니라 웨이보, QQ와 위챗 같은 SNS도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검열로 인하여 많은 계정들이 폐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경우 개인계정까지 100% 완벽하게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정을 삭제당한 사용자가 다시 새로운 개인계정을 개설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⁶⁷⁾ 따라서 QQ와 위챗에서 전개되는 모바일 인터넷종교 활동을 고찰하면, 갖가지 법적 규제 속에서도 저항과 신앙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중국 종교의 현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4) 반정부적 인터넷종교 활동

중국 정부는 이른바 극단 및 이단세력에 의한 종교활동을 사회안정, 민족화합, 국가통일에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엄금한다.⁶⁸⁾ 우선 민족분리주의자 혹은 종교극단주의자로 간주되어 국외로 망명한 종교집단이 있다. 가령,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은 위구르의 소리(維吾爾之聲),⁶⁹⁾ 티베트망명정부는 티베트의 소리(西藏之聲)와 달라이라마티벳종교기금회(達賴喇嘛西藏宗教基金會)⁷⁰⁾를 통하여 인터넷종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저항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反邪教’ 운동의 대상이 되는 이단세력의 종교활동 또한 활발하다. 사교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른데⁷¹⁾ 중국에서는 첫째, 종교조직이 합부로 종교나 기공 혹은 기타의 이름으로 건립되고 둘째, 종교조직의 수장을 신비화하거나 迷信邪說로 종교조직 구성원의 정신을 통제하고 셋째,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넷째, 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

66) 한 연구에 의하면, 2015년 QQ에 개설된 기독교가정교회 QQ그룹은 100여 개이고, 각 QQ그룹의 가입회원은 300명 정도, 온라인접속자수는 최소 기십 명에서 최대 기백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위챗그룹에는 교회명의로는 거의 검색되지 않고, 교구와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교역자 개인명으로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孫靜, 위의 논문, pp.39-41.

67) 중국에 ‘微博轉世’, ‘微信轉世’라는 속어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계정삭제를 당한 네티즌이 새로 sns계정을 만드는 일을 비유한다. 「網信辦嚴打“重生號”“轉世號”! 專家: 就是讓你寸草不生」(澎湃, 2018.11.17.)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45705; <https://posts.careerengine.us/p/5beeb0947185547f3dd4d9dd> [2019.10.30.]

68)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pp.31-33.

69) 維吾爾之聲 <http://uyghurpress.com> [2019.10.30] 2010년 이전 통제 속의 중국무슬림 인터넷종교 활동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WAI-YIP HO, 「Islam, China and the Internet: Negotiating Residual Cyberspace between Hegemonic Patriotism and Connectivity to the Ummah」,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0, No.1, March 2010.

70) 西藏之聲 <http://www.vot.org/cn>; 達賴喇嘛西藏宗教基金會 <http://www.tibet.org.tw>

71) 사교는 흔히 않은 신앙이나 종교행위 혹은 기괴하다고 여겨지는 종교 교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 호칭이다. 현재의 종교연구학술계에서는 이러한 주관성이 개입된 개념을 버리고 ‘신흥종교’라는 중성적 개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은 불법조직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규정하였다.⁷²⁾ 이에 중국 정부와 국무원 그리고公安부에서는 法輪功과 全能神 외에도 각각 7개의 사교 단체를 지정하여 14개의 신흥종교집단을 사교라고 규정했다.⁷³⁾ 華藏宗門, 觀音法門, 圓頓法門, 靈仙眞佛宗, 心靈法門은 불교를 내세우고 門徒會, 呼喊派, 三班僕人派, 靈靈教, 全範圍教會, 血水聖靈, 被立王, 主神教, 統一教, 新約教會, 中華大陸行政執事站, 天父的兒女, 다미선교회, 세계엘리아복음선교, 華南教會, 常受教 등은 기독교를 내세운 사교 단체이다. 그 중, 血水聖靈, 中華大陸行政執事站, 圓頓法門, 華南教會은 대만에 거점을 둔 기독교 계열이고 통일교, 다미선교회, 세계엘리아복음선교회는 한국계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사교 관련 사이트는 法輪功의 明慧網, 全能神教의 國度降臨福音網, 呼喊派的 主的恢復, 통일교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華藏淨宗의 弘法網 등이 있다.⁷⁴⁾ 신흥종교의 특성상 중국 밖의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QQ와 위챗에 개인계정을 개설하여 활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외, 가정교회가 사교로 간주되어 신고되기도 했다. 가정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응하지 않고, 해외와 연계되어 있고, 신도 수가 매우 많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한다. 이러한 활동은 중국 당정이 강력히 통제하는 이른바 사교 집단의 특성이기도 하다. 특히 2018년에 北京의 시온교회(錫安教會)와 成都의 秋雨聖約教會가 폐쇄당하고 종교교직자와 신도들이 체포된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끌었는데, 두 교회의 신도들은 경찰이 “당을 반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니 사교”이고, “불법교회와 사교단체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했다고 전한다.⁷⁵⁾

이상에서 다양한 반정부 종교단체의 인터넷 종교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당정의 통제와 검열 정책 사이에서 긴장감 넘치는 상호관계를 밝히고 중국 종교 현실의 일면을 드러내 보았다.

4. 나오면서

중국에서 인터넷과 종교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애당초 사회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소멸의 대상이지만 종교의 ‘장기성’과 ‘대중성’에 주목하여 소극적으로 용인해 오다가 현재는 종교

72) “對邪教組織的認定在世界範圍來說都是難題, 2017《解釋》第1條對邪教組織概念與內涵進行明確界定: 冒用宗教、氣功或者以其他名義建立, 神化、鼓吹首要分子, 利用製造、散布迷信邪說等手段蠱惑、矇騙他人, 發展、控制成員, 危害社會的非法組織, 應當認定為刑法第三百條規定的‘邪教組織’. 這一概念明確了‘邪教組織’認定的標準, 司法機關可據此予以認定, 重點從是否冒用宗教、氣功或者其他之名形成反社會的歪理邪說, 是否對首要分子進行神化宣傳, 是否利用製造、散布迷信邪說等手段蠱惑、矇騙他人, 是否以其邪說作為控制其成員的手段, 是否具有社會危害性的非法組織這五個關鍵要件把握是否屬於邪教組織.” 「新司法解釋對邪教犯罪的界定」(凱風, 2017.02.27.) http://anticult.kaiwind.com/xingao/2017/201702/27/t20170227_4903969.shtml [2019.10.30.]

73) 「中華人民共和國政府認定的邪教組織列表」<https://zh.wikipedia.org> [2019.10.30.]

74) 法輪功(明慧網) <http://www.minghui.org> ; 全能神教(國度降臨福音網) <https://www.hidden-advent.org/about-us.html> ; 呼喊派(主的恢復) <http://www.lrip.org/>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http://www.ffwp.org> ; 華藏淨宗弘法網 <https://edu.hwadzan.com/>

75) 「사교라는 꼬리표가 불을 위험에 처한 가정교회」(寒冬, 2019.03.02.) <https://ko.bitterwinter.org/house-churches-in-danger-of-being/> [2019.10.30.]

의 비약적 발전에 당황한 중국 당정이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도 강력하게 통제하는 등 ‘依法管理’의 정치적 대상이 되었다. 인터넷 또한 과학과 경제 강대국을 꿈꾸며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는데 그로 인해 인터넷의 개방·혁신·민주적 기능이 광범위하게 발현됨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속속히 인터넷규제법과 사이버보안법을 공포하여 검열과 규제의 정치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과 종교는 갈등의 현장이자 해결을 기다리는 모순이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노정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현대중국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인터넷종교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인터넷과 종교를 프리즘으로 삼아 현대중국의 종교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그로써 시진핑 시대의 중국 현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중국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제정된 인터넷종교 관련의 다양한 의견·규정·법규 등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정보 영역의 문제에서 사교 집단의 인터넷 활동과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인터넷 활동을 견제하는 수준이었으나 1999년 법륜공 사건 이후 종교를 이용한 국외 침투세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으면서 처음으로 인터넷종교사무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되었다. 2007년에 5대 종교사이트가 모두 인터넷에 등장하고 종교의 인터넷화가 뚜렷해지면서 종교사무관리는 매우 복잡해지는 형세에 놓였다. 이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종교사무관리 정책이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의식형태 건설’을 위한 중국 특색의 인터넷문화 수립 또한 절실했다. 이후 티벳과 신장 사태를 경험하고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인터넷 문제를 국가안보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서 강력한 인터넷 통제플랫폼 건설과 인터넷종교사무에 대한 ‘의법관리’ 강화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종교사무조례」와 「인터넷종교 정보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항을 증설함으로써 인터넷종교사무에 대한 의법관리를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다음, 인터넷종교 매체를 운영하는 활동 주체에 따라 인터넷종교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고찰했다. 첫째, 국가종교사무국과 반사교망을 비롯하여 5대 종교협회처럼 정부와 관변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종교정책의 지침을 선전하고, 종교 관련 여론을 주도하고 이로써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학술 및 종교단체의 종교 전문사이트는 그 학술적 지향과 종교 활동의 방향에서 중국 당정의 통제와 길들이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외 블로그, 개인SNS 공간의 종교활동은 인터넷종교 정보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공개적인 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교극단주의 및 이단세력, 사교로 간주되는 종교활동단체들은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페이스북, 유튜브, 트윗으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중국 당정과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 김성옥·전명중,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강경구·김경아,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중국학』, 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 김경아·강경구, 「중국의 종교정책과 법치화수준의 제고 — 수정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중국학』, 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60(2),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 이중희·김경환, 「중국의 인터넷서비스와 모바일혁명(2011-2018년)」, 『아시아연구』, 22(1), 한국아시아학회, 2019.
- 임상범, 「‘응유진유’의 오기 그리고 5월35일: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 『성균차이나브리프』, 5(3), 성균중국연구소, 2017.
- 「사교라는 꼬리표가 불을 위험에 처한 가정교회」(寒冬, 2019.03.02.) <https://ko.bitterwinter.org/house-churches-in-danger-of-being/> [2019.10.30.]
- WAI-YIP HO, 「Islam, China and the Internet: Negotiating Residual Cyberspace between Hegemonic Patriotism and Connectivity to the Ummah」,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0, No.1, March 2010.
- 國家宗教事務局政策法規司編, 『宗教政策法規文件選編』,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2.
- 孫靜, 『新媒體視域下當代宗教傳播模式與傳播效果研究』, 中國科學技術大學(博士), 2015.
- 石麗, 「網絡宗教、網絡社會與社會治理研究——以S市調研為例」, 『世界宗教文化』, 2016(10).
- 濮靈, 「我國網絡宗教事務法治化管理進程研究」, 『世界宗教文化』, 2019(02).
- 張華·張志鵬, 「互聯網+時代的宗教新形態」, 『世界宗教文化』, 2016(04).
- 左旭生·王斯琴, 「網絡宗教行為及管理對策淺析」, 『中國民族報』, 2007(10).
- 「宗教事務條例(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第686號)」(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7.08.26.),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019.10.30.]
- 「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2016年11月7日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四次會議通過) http://www.gov.cn/xinwen/2016-11/07/content_5129723.htm [2019.10.30.]
-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征求意见稿)」(國家宗教事務局, 2018.09.10.) <http://www.mzb.com.cn/html/report/180930902-1.htm> [2019.10.30.]
- 「習近平:要高度重視互聯網宗教問題」(中國幹部學校學習網, 2016.04.24.), <http://www.ccln.gov.cn/hotnews/183188.shtml> [2019.10.30.]
- 「新司法解釋對邪教犯罪的界定」(凱風, 2017.02.27) http://anticult.kaiwind.com/xingao/2017/201702/27/t20170227_4903969.shtml [2019.10.30.]
- 「中國反邪教“一網兩微”今天正式上線」(中國新聞網 2017.09.22.) <http://www.chinanews.com/gn/2017/09-22/8337544.shtml> [2019.10.30.]
- 「中穆網疑刊載海外留學生致習近平公開信遭封殺」(RFA新聞, 2016.12.12.) <http://www.rfa.org/cantonese/news/website-12122016084454.html> [2019.10.30.]
- 「網信辦嚴打“重生號”“轉世號”! 專家: 就是讓你寸草不生」(澎湃, 2018.11.17.) https://www.thepaper.cn/newDetail_forward_2645705 <https://posts.careerengine.us/p/5beeb0947185547f3dd4d9dd> [2019.10.30.]
- 「基督教百科」<https://bible.world/%E5%87%AF%E9%A3%8E%E7%BD%91> [2019.10.30.]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網絡, 中國, 宗教, 宗教政策, 宗教事務條例		
Key Words	영문	Internet, China, Religions, Religious policy, Regulation on Religious Affairs		
<div><div>A Study on the Internet Use of Religions in China</div><div>Yoo, Mi-Kueng</div><div><p>The Internet and religion are very sensitive topics to deal with in China.</p><p>They control democratic function of the Internet internally as well as operate the screening system externally in the name of defending social stability, ethnic solidarity, national unity and socialism. Religion is no excep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online religious activities in China.</p><p>The study explores online and mobile religious activities in China and also includes ones outside the Chinese territory that Chinese government have blocked search internally. Online religious activities in China are classified into 4types depending on the service provider.</p><p>First, there are websites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the department of local religious affairs and patriotic religious groups and their affiliated places opened. We can read the direction of the Chinese religious policy.</p><p>Secondly, you can find religion-related Web pages opened by the portal, communities such as BBS and the personal internet accounts run by a religious worker or a believer on social media platform like WeiBo and WeChat.</p><p>Lastly, there are anti-government religious online media run by religious extremists or the heretic. They engage in guerrilla activities to avoid internet censorship or set up a website on an overseas network. They usually aim resistance to Chinese religious policy. Therefore we can see another possibility of Chinese religion in the future.</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유미경 / 劉美景 / Yoo, Mi-Kueng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chinamky@daum.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25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